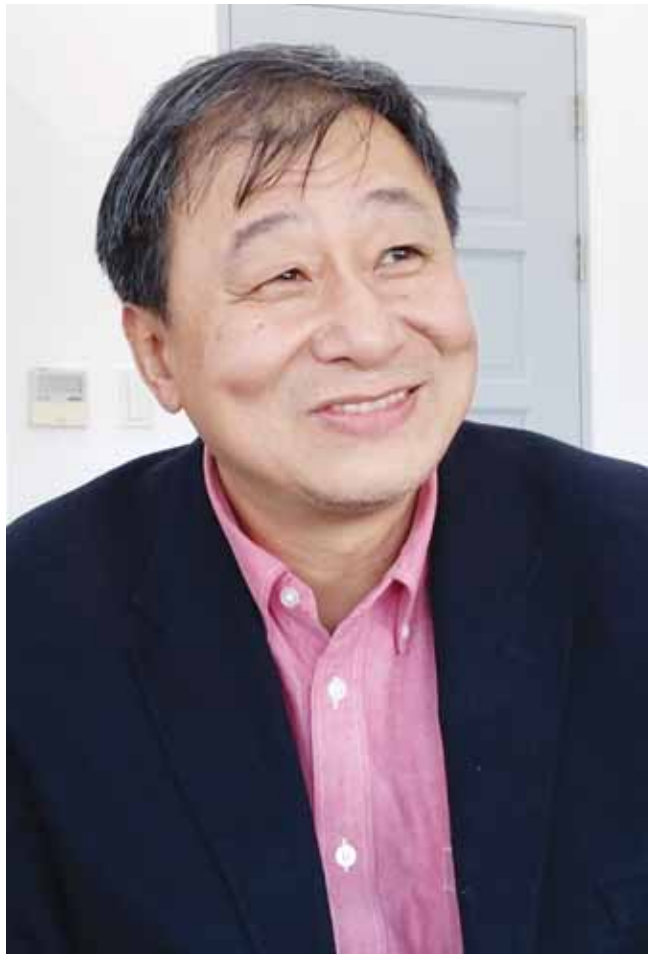


“한국 작가 중국 전시로 세계 진출 돕겠다”

왕쑤킷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장 광주 찾아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이 자리한 히말라야센터.

“중국과 한국은 드라마, 영화, K팝 등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술교류는 부족했죠. 문화도시 광주의 작가들을 중국에 소개하고, 중국의 미술을 한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중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 왕쑤킷(61·Wong Shunki) 관장이 광주를 찾았다. 히말라야미술관은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내년 작가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왕쑤킷 관장은 9일 상록전시관에서 ‘히말라야미술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내년 김종만·황영성 전시 예정

예술에 대한 광주 열정 부러워

드라마처럼 미술교류 늘려야

강연에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난 왕쑤킷 관장은 광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이번이 4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광주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요. 수준 높은 전시를 보여주는 광주시립미술관과 많은 미술관, 갤러리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도시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좋아요. 음식도 맛있구요. 하하.”

상하이 젠다이 현대미술관으로도 알려져 있는 히말라야미술관은 중국 젠다이 그룹이 지난 2005년 만든 미술관이다. 호텔, 디자인센터, 작품 판매숍 등과 함께 상하이 히말라야센터에 내에 위치해 있으며 미술 전시회, 교육, 컬렉션, 연구 및 국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히말라야 센터는 건물 길이만 200m에 달하는 초대형 건물이다. 지난 2006년 손봉태 작가

가 레지던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히말라야미술관 개관 이전에는 중국의 모든 미술관은 정부가 운영해왔다.

“히말라야미술관 개관 이후 9년 동안 상하이에만 모두 17개의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미술관도 12~13개에 달하죠. 상하이는 중국에서도 미술관이 가장 많은 도시로 베이징을 뛰어넘는 미술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미술관은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 유수의 작가들을 초청하는 국제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조각가인 토니 크랙 등이 저희 미술관을 다녀갔고 정광희, 김영삼 등 광주 작가들의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정록(사진), 김동아(한국화) 작가가 히말라야미술관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상하이에 머물며 작업을 했다. 또 상하이미술관 직원 2명이 올해 광주비엔날레재단 인턴으로 일하며 미술 경영을 배워갔다. 내년에는 젠다이그룹 디자인 회장의 초청으로 김종만 작가와 황영성 화백의 대형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 작가들은 작업하는 방법이 새롭습니다. 중국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안겨주죠. 그동안 한국 작가들의 전시가 베이징에서 주로 열렸어요. 하지만 작은 규모의 갤러리 위주여서 그 작가의 모든 작업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상하이에서는 한국 작가들의 대형 전시를 통해 그 작가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80년대 이후 변화된 중국 수묵을 광주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광주와 상하이의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왕쑤킷 관장은 홍콩에서 25년 동안 작가와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 히말라야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다.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홍콩관을 기획했고, 홍콩예술발전위원회 시각예술위원회 의장, 베니스비엔날레 제49·50회 홍콩관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첼리스트 양성원과 X-mas를



클라리넷 앙상블 ‘레봉백’ 등과 협연

22일 광산문화회관…17일까지 무료 관람 신청

클래식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양성원씨가 클라리넷 앙상블 ‘레봉백(Les Bons Bees)’, 피아니스트 야마구치 히로아키와 특별 공연 ‘메리(Merry) 레봉스마스’를 선보인다. 22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회관.

파리음악원과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수학한 양성원은 명 첼리스트 야노스 슈타커의 애제자로 현재 연세대 교수, 런던 로열 아카데미 오보 무직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 링컨센터 등 굴지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열어 호평을 얻었으며 올해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엔리코 피체와 브람스 ‘첼로협주곡’ 전곡 녹음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가다.

불어로 ‘멋진 부리’라는 뜻을 가진 레봉백은 4명의 관악주자와 1명의 타악주자로 구성된 프랑스 출신 클라리넷 앙상블. 이미 전 세계에서 700여 차례 이상 공연하고, 프랑스 축제 섭외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인기 있는 실력과 연주그룹이다. 팀 리더인 플로랑 에오(클라리넷)를 비롯, 브뤼노 데무이에르(타악기), 에릭 바레(클라리

넷), 로랑 비엔부(바셋 호른), 이브 잔(베이스 클라리넷)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 레퍼토리는 앙씨와 레봉백이 지난 2011년 발매한 음반 ‘Musical Getaway’에 수록된 곡부터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관객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준비했다.

바흐의 ‘아리오소’, 파레스의 ‘케사스, 케사스, 케사스’, 하차투리안의 ‘칼의 춤’, 페리의 ‘년간의 사랑’, 로시니의 ‘라 단 짜’, 라리의 ‘날 사랑해 줘요’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울면 안돼’, ‘퍼스트 노엘’, ‘소나무야’, ‘징글벨’ 등 유쾌한 캐럴도 공연한다.

또 피아니스트 야마구치 히로아키(교토 교육대학 부교수)의 협연과 함께 양성원씨의 위트 있는 해설도 곁들여진다.

7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선착순 400명에 한해 17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예약은 광산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homr2145@korea.kr)로 전송하면 된다. 문의 062-960-8253. /김미은기자 mekim@

영산포 선창가 사연 많은 가족 이야기

극단 예인방 ‘엄마의 강’

11~12일 나주문예회관



나주에서 활동하는 전문 예술 극단 ‘예인방’(이사장 김진호)이 ‘엄마의 강’을 무대에 올린다. 11~12일 오후3시~7시 나주문예회관.

고구려 대학 김성진 교수가 희곡을 쓴 ‘엄마의 강’은 1980~90년대 영산포 선창가를 배경으로 사연 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이다.

연출은 송수영씨가 맡았으며 주인공 엄마 역으로는 ‘김치’ ‘무어별’ 등에 출연한 임은씨가 출연한다. 또 ‘에쿠우스’ 등으로 백상예술상 연극상, 동아연극상 등을 수상한 중견 배우 이승호씨를 비롯해 김영·

김은림씨가 출연한다.

테마 음악으로 ‘엄마야 누나야’로 잘 알려진 나주 출신 안성현 작곡가의 작품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객석기부 운동으로 소외된 이웃, 나주 혁신도시 기관 직원과 지역민들에게도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1588-6057.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시 문화예술상’ 수상자 선정



오건택씨, 염창권씨, 강홍기씨, 방의건씨

오건택 ‘오지호미술상’ 본상

‘박용철문학상’ 염창권씨 등

오건택(68)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이 ‘2014 광주시 문화예술상’ 오지호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9일 선정됐다.

오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광주미술협회장, 한국미술 부이사장, 광주비엔날레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박용철문학상에는 염창권(55) 광주교대 교수, 김현승문학상에는 강홍기(74) (사)우리시회 명예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허백련미술상 본상은 방의건(76) 한국미협 고문이, 특별상은 한국화가 이창훈(44)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오지호 미술상 특별상 수상자로는 조작가 최순임(42)씨가 선정됐다.

광주시 문화예술상은 한국문화와 미술(한국화, 서양화), 국악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박용철, 김현승, 정소파, 허백련, 오지호, 임방울 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문화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수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10일 오후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 시공 / 옥상시공후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티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